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동향과 부시의 정치적 부담

□ 국제사회의 반발로 국내여론의 지지는 늘어나

- 지난 주 미국이 2차 이라크 전쟁 결의안에 대한 UN 지지를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이 좌절을 겪으면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전쟁 지지율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지지와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와 A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3가 미국의 군사행동에 동의했음. 뉴욕타임스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55%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였음.

□ 부시의 지지율은 낮아져

- 대부분의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對이이라크 전쟁 지지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시 美대통령의 지지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지난해 4/4분기 부시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부시를 지지하는 응답이 거의 2/3를 차지했던 데 비해, 최근에는 그의 지지도가 51~42% 범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200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시의 재선 가능성에는 빨간 신호가 켜지게 되었음.
-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부시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부시는 38%대 37%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금년 초 10% 정도의 여유 있는 승리에서 그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임.

□ 미국인들의 확신도 줄어들고 있는 듯

- 전쟁에 대한 지지율은 높으나 일반인들의 정서는 점차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부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도덕적 명분에 대한 신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미국인들 3명 중 1명만이 "지금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지난 7년간의 지지 지지 나이 스즈세 니프러오
- 이와 같은 여론의 이중성은 전쟁 자체보다는 주가하락, 실업증가, 소득감소 등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많은 경제주체들은 미국이 신속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가 전쟁의 후유증에 불모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여론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라크 전쟁 추진은 부시에게 정치적 자산이 됨과 동시에 이라크 전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부시가 안고 있는 정치적 부담

- 전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지지정당에 따라 점차 양극화하고 있음. 전쟁 지지 시위는 예외 없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州)에서 있었던 반면, 반전시위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에서 발생했음. 또한, 지금까지 뉴욕시를 비롯하여 민주당이 지배하는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전결의안이 채택되었음. 지난주의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원의 73%가 UN의 지지 없는 전쟁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원의 찬성률은 42%에 그쳐, 전쟁에 대한 여론이 양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지난해 의회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승인한 이후 공개적인 반대를 자제해 오던 민주당 진영도 UN, NATO와 터키의 설득에 실패한 공화당 정부

의 외교적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정치분석가들은 전쟁 후에도 미국이 입은 외교적 상처가 빨리 회복되지 못할 경우 부시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미국 내 전쟁에 대한 높은 여론지지가 생각만큼 확고한 것이 아니며, 도덕성의 논란까지 안고 있는 부시로서는 전쟁이 신속하고 완벽한 승리로 끝나지 못하거나 전쟁복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경우 상당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